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3.12.(제13호)

##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2

류지아·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출산·양육행복 지표 개발 연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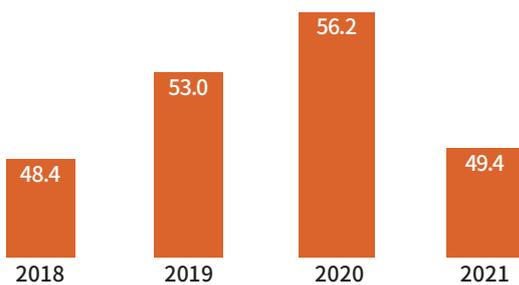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 연구(2022)

난임 시술 관련 주요 정부 정책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있다. 2017년 말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3의 규정을 통해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연간 3일 중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1일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입법 당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사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현황과 서울시 정책을 살펴 본 지난 호 리뷰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제도 이용 현황과 함께 난임 진단자들이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위험 등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하여 심리 정서 지원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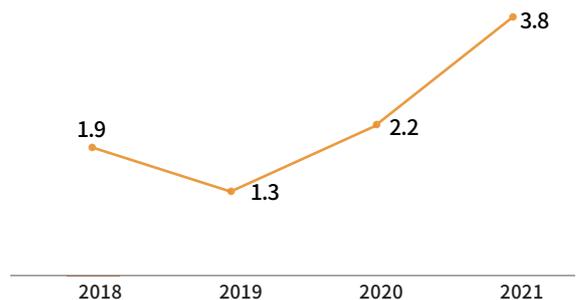
(단위: %)

'모른다'를 제외한 응답률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치료 휴가제도 인지도

(단위: %)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휴가제도 활용 실적

\* 고용노동부의 각 연도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중 서울 소재 사업체의 응답률

2018-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참여 사업체 수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서울 소재 사업체 수	1,293	2,863	1,406	1,195

\* 조사결과가 설문 이듬해 연말에 공표되는 관계로 2022년 말 발표된 2021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법 신설(2017.11.28.)에 의한 난임치료 휴가제도 시행 시점이 2018년 5월 29일이므로 2018-2021년에 한정하여 제시함.

##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

### ○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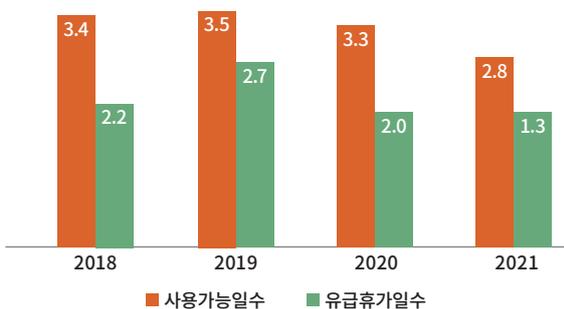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는 사업장에서의 관련 제도 도입 여부와 활용실태에 대해 사업체 인사 담당자가 응답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경험한 활용실태를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조사의 한계로 지적되어 음(전기택 외, 2022). 반면, 인사담당자의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 인지도나 활용 실적 관련 사업체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관련 법이 정비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인사담당자가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이래 증가세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림 1]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치료 휴가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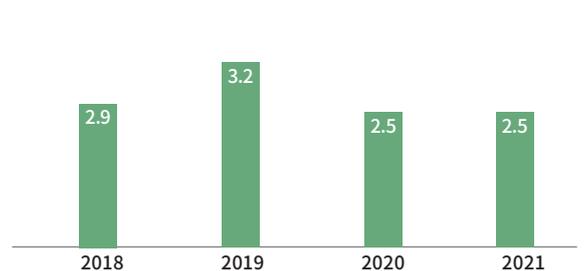


- 법령상 난임휴가는 3일로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사업체의 평균 난임치료 휴가일수는 2020년 조사까지는 법정 휴가 3일보다 길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2.8일로 짧아졌음. 난임치료 유급휴가일의 경우 법정 휴가 1일보다는 길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1.3일로 이전보다 줄어듦. 평균 사용일 수 또한 2018년,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 2.5일로 축소됨.

[그림 2] 서울 소재 사업체 평균 난임치료 휴가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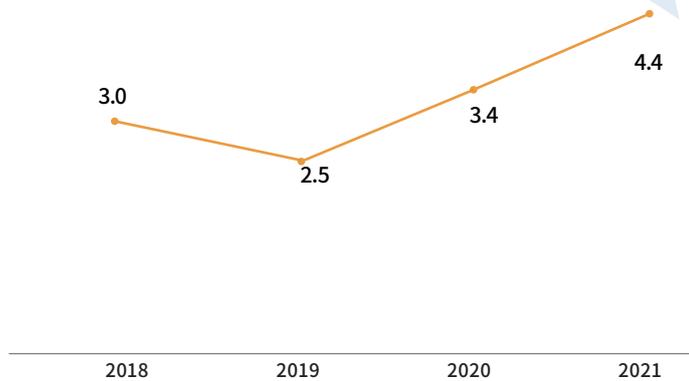
[그림 3]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치료휴가 평균 사용일 수



-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서울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2018년 2.7명에서 2019년 2.6명, 2020년 2명, 2021년 1.5명으로 줄어든 상황임. 이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자 수가 2018년 80,709명에서 2021년 81,599명으로 증가한 실태<sup>1)</sup>와는 대조적임.
-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다수는 “대상자가 없어서”를 응답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중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를 응답한 비율도 2021년 4.4%임.

1) 국민관심질병 요양기관소재지별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빅데이터 개방 포털)

|그림 4|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휴가제도 활용실적 없음의 사유\_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의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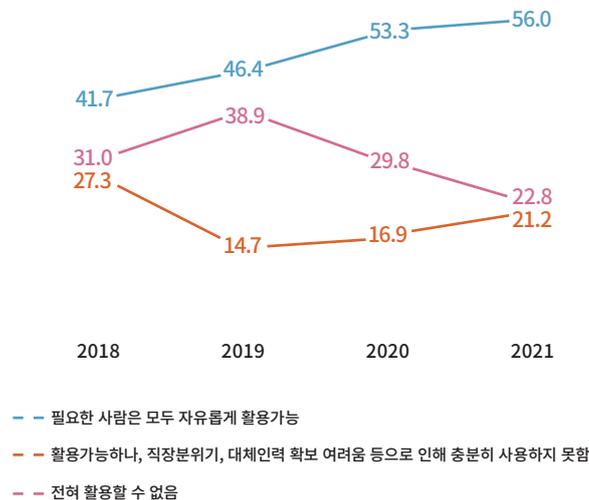


-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활용 실적이 없다는 응답은 실제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의 과제를 남김.

○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의 어려움

- 제도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 난임치료 휴가의 활용 가능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필요한 사람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이며,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감소세임. 다만, 직장 분위기,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8년 27.3%에서 2019년 14.7%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2021년에는 다시 16.9%, 21.2%로 나타남.

|그림 5| 서울 소재 사업체 난임치료 휴가 활용 현황(%)



- 선행연구에 의하면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해 직장에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고, 관련된 동료들의 질문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함(김동식 외, 2021). 남성 난임 진단자의 경우, 동료들이 남자 또한 난임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남자가 왜 난임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등 직장동료들의 공감 부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전혜상, 2022).

- 현재의 난임치료 휴가가 제도상 연간 3일로 대체인력을 요할 정도의 장기간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직장 분위기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을 감안하여 난임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난임진단자 및 피시술자 심리 정서 지원

### ○ 난임진단자들의 고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임치료 휴가제도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님. 난임 환자에 대한 정서적 배려와 서비스, 난임 관련 우울증 대응 지원 부족의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음.
- 난임 진단자들은 감정 기복, 우울, 스트레스 등(이영희, 박정숙, 2019; 김미옥 외, 2016)과 함께 주변 지인들이 난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감을 호소함(류숙진, 2019). 따라서 스스로 대인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끼며 점차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점이 관련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
- 우울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임신에 대한 압박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김미옥 외, 2016)는 점에서, 2023년 7월부터 실시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 폐지는 경제적 부담 경감의 효과와 함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다만 경제적 부담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 의료진과의 상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실제 난임 관련 정보를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전혜상, 김동식, 2022)는 점도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킴. 온라인 카페조차 남성에게는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술 기관에서는 시술 결과 등 정보를 여성에게만 통보하여 본인이 원인임에도 난임 남성은 정보 제약을 받음(전혜상, 2022). 난임 남성들은 정보 접근성에서 여성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음.

### ○ 난임진단자 및 피시술자 심리 정서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오음. 모자보건법 제11조의 4에 근거해 2018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역별 권역센터에서 난임부부 상담 서비스, 임신부 상담, 산후 우울증 등 임신 전 주기에 걸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앙센터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2022년까지 서울시를 권역으로 하는 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음. 물론 중앙센터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센터 이용자의 다수는 서울시민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중앙센터의 실적 분석 자료(김장래, 2023)를 통해 볼 때 중앙센터 이용자의 65%가 서울시민임.
- 2022년 상담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센터의 경우 다른 권역 센터에 비해 난임 등 상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2022년 전체 센터의 상담실적 중 난임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 25.9%에 비해, 서울에 소재한 중앙센터의 난임 상담 비중은 60.8%임.

표 11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현황 및 상담실적 (2022)

(단위: 건)

구분	기관	지정	2022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상담실적			
			임신부	산모	난임 등	합계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2018.06	811	1,592	3,728	6,131
인천	가천길병원	2018.12	1,155	5,652	1,015	7,822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2018.12	3,252	1,671	1,091	6,014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2018.12	610	4,573	995	6,178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 지회	2020.12	1,228	2,206	2,280	5,714
경북	안동의료원	2021.10	2,170	2,381	452	5,003
	합계		9,226	18,075	9,561	36,86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세제 이슈 23호(2023.06.)

##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2

- 개소 이래 중앙 난임·우울증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를 전체 센터의 실적과 비교하면 전체 상담 실적의 17.7%를 담당하는 중앙센터가 난임의 경우는 전체 센터 상담의 38% 비중을 차지함.

【표 2】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누적 상담실적(2018.6 - 2023.9)

(단위: 건, %)

구분	난임	임산부	기타	합계
중앙센터	13,649 (56.2)	10,451 (43.1)	167 (0.7)	24,267 (100.0)
전체센터	35,943 (26.2)	100,428 (73.3)	638 (0.5)	137,009(1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난임 부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에 중추적 역할 해주기를”(2023.11.24.)

- 중앙센터의 경우, 2018~2020년까지 대면상담으로 상담(상담사 1인당 적정일 상담 건수 6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대기 기간 없이 비교적 대상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상담이 가능하였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상담 수요 증가 및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
- 각 센터 별로 상담 예약 신청 후 일반상담까지 소요된 평균 일 수를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중앙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난임·우울증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상담을 위해 평균 대기해야 시간

구분	중앙	전남	대구	인천	경기	경북
2018년	대기 없음					
2019년	대기 없음	2일	3일	7일		
2020년	대기 없음	3일	7일	7일		
2021년	14.7일	5일	7일	7일	0일	2일
2022년	32일	3일	7일	7일	3일	3일
2023년 8월	53.4일	7일	10일	5일	10일	9.6일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인용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상담까지 평균 53.4일 대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2023.10.25.)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긴 대기일 수는 결국 서울시 차원의 난임 전문 상담기관 확대 증설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서울시는 2023년 7월 31일 난임부부, 임산부, 양육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함.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병원 내 상담실(강남센터)과 송파구 가든파이버(송파센터)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를 설치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함.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1 상담 대응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함.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 예약 또는 온라인으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www.mindcare-for-family.kr)에서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함.

## 향후 과제

### ○ 난임 관련 정책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난임치료 휴가제도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사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제도 이용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실사가 요구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물뿐만 아니라 ‘난임시술에 대한 안내’ 등을 보건소에 비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에 링크를 생성해 난임·우울증센터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하고, 관련 조사 등을 통해 난임부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 유형을 파악한다면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 심리적 고충 경감 지원

-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한 난임 관련 자조 모임 구성과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난임 진단자 및 피시술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여 관계 위축감을 해소하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모임의 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본인이 난임 진단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 원인의 피시술자도 있으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설계함.
- 난임 원인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과 난임 남성에 대한 심리적 지지 부족을 고려하여 난임 남성 특화 심리 상담 기획이 필요함.
- 난임은 난임 당사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도 중요함. 시술 결과와 상관없이 난임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면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난임 당사자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부 단위의 심리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의료 사회적 상담 등 난임 시술의 연장선에서 난임 시술 중단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강민정, 김종숙, 김난주, 이선행, 권소영, 2019, 2018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김동식, 황정임, 동제연, 전혜상, 부서윤, 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미옥, 남현아, 윤미선, 2016, “난임 치료 과정 중인 여성의 난임스트레스, 우울 및 회복탄력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1), 93-104.
- 김장래, 2023,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발전 방안”,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41-60.
- 남희, 임슬기, 강민지, 2023, “난임 치료지원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재정추계&이슈』, 23, 국회예산정책처, 54-80.
- 류숙진, 2019, “난임, 유예된 모성실현의 사회적 맥락: 온라인 난임 커뮤니티를 통한 질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8(2), 5-38.
- 이영희, 박정숙, 2019,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3(3), 191-201.
- 전기택, 김종숙, 강민정, 김난주, 이선행, 권소영, 2020, 2019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전기택, 김난주, 신우리, 이선행, 노우리, 2021, 2020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전기택, 김종숙, 김난주, 신우리, 최진희, 노우리, 2022, 2021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전혜상, 김동식, 2022, “여성의 난임시술 경험에 관한 고찰: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1(1), 211-246.
- 전혜상, 2022, “기혼 남성의 난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 21』, 13(3), 2109-2122.

### 웹페이지

- 국민관심질병통계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InsInfoTab1.do>
- 국정감사 보도자료(2023.10.23.) <https://blog.naver.com/gangseo-kap/22324739028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1.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